

2017. 11.
Vol.3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 다양한 역량강화의 청소년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최용환 부연구위원 cyh77@nypi.re.kr

한지형 전문연구원 hjh@nypi.re.kr

개요

- 조사명**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1~7차년도 조사(2010년~2016년)
- 조사목적**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는 아동·청소년의 발달환경, 의식, 태도 전반에 대한 횡단적 실태와 시간 흐름에 따른 종단적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수립 및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함.
- 조사대상** ▶ 2010년에 선정된 초1 패널 표본 2,342명, 초4 패널 2,378명, 중1 패널 2,351명
▶ 3개 코호트의 2010년~2016년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된 자료를 활용함.
- 조사설계**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동일 대상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 조사하는 중다패널설계 (multiple panel design) 방식으로 설계됨.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항목**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영역은 크게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으로 구분됨.
- 개인발달 영역: 신체 발달, 지적 발달, 사회정서 발달, 진로계획, 비행, 생활시간 등
- 발달환경 영역: 가정환경, 또래환경, 교육환경, 지역사회, 매체환경, 활동·문화환경 등
▶ 본 조사항목 중 '활동·문화환경' 영역에서 '청소년 봉사활동(봉사활동 참여경험,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 참여동기-1순위)' 관련 문항을 활용함.

1 분석 목적 및 자료

- 2017년 현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주기 사업이 종료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년간에 걸쳐 구축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청소년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의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최용환 외, 2017).
- 한편 2017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는 한해로 국가적으로 새로운 국정과제가 설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청소년분야에서는 6차 기본계획이 준비되는 ‘전환적 모멘텀(momentum)’이기도 함. 국정과제의 설계는 미래 우리사회의 청사진이기도 하므로 증거 기반(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교화되고 조정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청소년관련 과제로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성가족부)’을 제시¹⁾하고 있음. 본 국정과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과제목표를 삼고 있음. 특히 청소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활동정책은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NYPI Bluenote 통계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개년간 구축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새롭게 설계된 청소년관련 국정과제를 조망하여 보고자 함. 특히,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의 참여에 대한 종단적 고찰을 통하여 새롭게 설정된 국정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함.

1) 국정과제-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에서 2017년 11월 3일 인출.

2 코호트별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경험, 참여동기, 만족도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의 코호트(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별 봉사활동의 연간 참여경험을 보면 대체로 초1 패널은 56.0%가 참여경험이 있었고, 초4 패널은 2013년부터 2016년 평균 50.65%, 중1 패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51.27%가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봉사활동의 연간 참여경험

구분		1차 (2010)	2차 (2011)	3차 (2012)	4차 (2013)	5차 (2014)	6차 (2015)	7차 (2016)
초1 패널	있다	—	—	—	—	—	—	56.0%
	없다	—	—	—	—	—	—	44.0%
초4 패널	있다	—	—	—	44.9%	50.0%	53.9%	53.8%
	없다	—	—	—	55.1%	50.0%	46.1%	46.2%
중1 패널	있다	61.2%	52.9%	56.8%	41.6%	44.7%	50.4%	—
	없다	38.8%	47.1%	43.2%	58.4%	55.3%	49.6%	—

*주: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에 대한 2010~2016년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된 데이터를 활용함.

봉사활동 참여경험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기준(초1 패널은 7차년도, 초4 패널은 4~7차년도, 중1 패널은 1~6차년도만 조사 실시).

— 초1 패널: 7차(473,196명)

— 초4 패널: 4차(601,268명), 5차(599,300명), 6차(597,309명), 7차(597,131명)

— 중1 패널: 1차(646,048명), 2차(644,026명), 3차(639,755명), 4차(642,924명), 5차(635,250명), 6차(624,373명)

- 코호트(초1, 초4, 중1)별 봉사활동의 참여동기(1순위 응답)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모든 코호트에서 봉사활동 주요 참여동기는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빈도는 초1 패널이 124,842(전체 비율 47.15%), 초4 패널이 575,378(전체비율 47.50%), 중1 패널이 924,395(전체비율 52.13%)로 조사됨. 이를 보면 청소년의 약 절반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의 약 절반이 성적 때문에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 코호트별 봉사활동 참여동기 빈도(1순위)

참여동기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
	표본	표본	표본
교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21,267	79,763	95,945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56,173	258,443	324,636
자아실현을 위해	21,114	135,905	164,114
새로운 사람 만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	8,809	25,852	51,700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24,459	83,619	125,506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124,842	575,378	924,395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1,332	5,161	17,729
기타	6,764	47,137	69,186
합계	264,760	1,211,259	1,773,212

*주: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에 대한 2010~2016년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된 데이터를 활용함.

봉사활동 참여동기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기준.(초1 패널은 7차년도, 초4 패널은 4~7차년도, 중1 패널은 1~6차년도만 조사 실시).

— 초1 패널: 7차(264,760명)

— 초4 패널: 4차(269,358명), 5차(298,363명), 6차(321,987명), 7차(321,550명)

— 중1 패널: 1차(251,843명), 2차(339,495명), 3차(361,031명), 4차(266,880명), 5차(284,178명), 6차(127,422명)

- 봉사활동의 동기가 7차년도만 조사된 초1을 제외한 초4, 중1 코호트의 봉사활동 참여동기(1순위 응답)에 대한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의 봉사활동 동기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종단적 변화를 보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동기의 다수는 **학업성적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초4 패널에 대한 봉사활동 참여동기의 종단적 변화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차 (2010)	2차 (2011)	3차 (2012)	4차 (2013)	5차 (2014)	6차 (2015)	7차 (2016)
교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	—	—	5.1%	5.5%	6.2%	9.2%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	—	—	20.8%	19.1%	18.0%	27.3%
자아실현을 위해	—	—	—	9.1%	11.6%	10.5%	13.3%
새로운 사람 만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	—	—	—	1.8%	2.2%	2.1%	2.3%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	—	—	8.9%	7.6%	5.6%	5.8%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	—	—	49.5%	49.1%	54.1%	37.7%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차 (2010)	2차 (2011)	3차 (2012)	4차 (2013)	5차 (2014)	6차 (2015)	7차 (2016)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	—	—	0.4%	0.4%	0.5%	0.4%
기타	—	—	—	4.3%	4.3%	3.0%	4.0%
합계	—	—	—	100.0%	100.0%	100.0%	100.0%

*주: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에 대한 2010~2016년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된 데이터를 활용함.

봉사활동 참여동기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기준(초4 패널은 4~7차년도만 조사 실시).

— 초4 패널: 4차(269,358명), 5차(298,363명), 6차(321,987명), 7차(321,550명)

표 4 중1 패널에 대한 봉사활동 참여동기의 종단적 변화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차 (2010)	2차 (2011)	3차 (2012)	4차 (2013)	5차 (2014)	6차 (2015)	7차 (2016)
교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3.1%	4.4%	4.4%	6.8%	8.8%	7.4%	—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16.0%	15.4%	13.1%	18.7%	25.8%	30.4%	—
자아실현을 위해	5.8%	6.8%	8.5%	13.0%	13.5%	11.2%	—
새로운 사람을 만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	2.1%	2.4%	2.1%	3.9%	3.8%	5.2%	—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7.0%	7.0%	6.1%	9.0%	7.1%	6.5%	—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60.4%	60.0%	64.0%	42.3%	33.9%	33.3%	—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1.2%	0.9%	1.1%	0.6%	1.2%	1.0%	—
기타	4.4%	3.0%	0.8%	5.7%	5.9%	5.1%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에 대한 2010~2016년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된 데이터를 활용함.

봉사활동 참여동기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기준(중1 패널은 1~6차년도만 조사 실시).

— 중1 패널: 1차(251,843명), 2차(339,495명), 3차(361,031명), 4차(266,880명), 5차(284,178명), 6차(127,422명)

-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동기를 '성적유인 동기'와 '비성적유인 동기'로 대별하여 봉사활동의 만족도를 살펴봄. 먼저, 초1 패널은 '성적유인 동기'로 참여한 봉사활동의 만족도가 3.32로 '비성적유인 동기'로 참여한 봉사활동의 만족도 3.40보다 낮게 확인됨. 다음으로 초4 패널과 중1 패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남. 즉, '성적유인 동기'로 참여한 봉사활동의 만족도가 '비성적유인 동기'로 참여한 봉사활동 만족도보다 낮다는 것이 모든 코호트의 종단분석을 통해 확인됨.

표 5 성적유인 동기 만족도 대 비성적유인 만족도(2010~2016)

구분		1차 (2010)	2차 (2011)	3차 (2012)	4차 (2013)	5차 (2014)	6차 (2015)	7차 (2016)
성적유인여부	코호트							
성적유인 동기	초1 패널	—	—	—	—	—	—	3.32
	초4 패널	—	—	—	3.07	3.21	3.22	3.21
	중1 패널	3.14	3.11	3.07	3.16	3.20	3.15	—
비성적유인 동기	초1 패널	—	—	—	—	—	—	3.40
	초4 패널	—	—	—	3.33	3.35	3.39	3.40
	중1 패널	3.30	3.29	3.30	3.43	3.39	3.45	—

*주: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에 대한 2010~2016년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된 데이터를 활용함.

봉사활동 참여만족도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기준(초1 패널은 7차년도, 초4 패널은 4~7차년도, 중1 패널은 1~6차년도만 조사 실시).

— 초1 패널: 7차(364,949명)

— 초4 패널: 4차(269,829명), 5차(299,613명), 6차(321,987명), 7차(321,550명)

— 중1 패널: 1차(390,114명), 2차(339,237명), 3차(347,049명), 4차(267,685명), 5차(284,178명), 6차(127,4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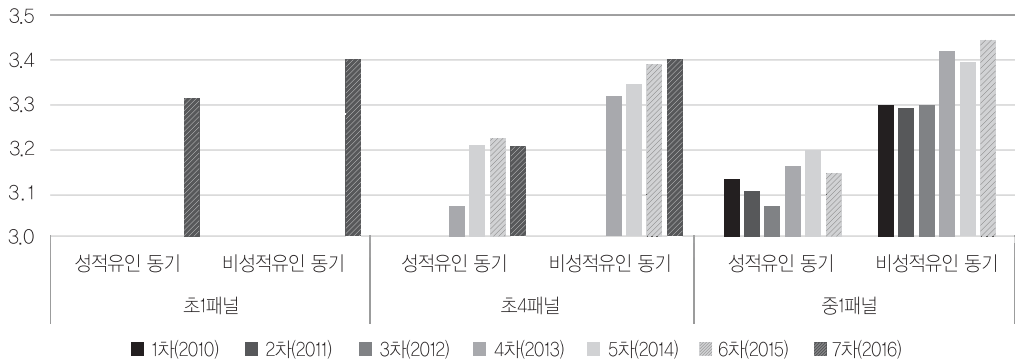


그림 1 성적유인 동기 만족도 대 비성적유인 동기 만족도(2010~2016)

- **연령 변화에 따라 '성적유인 동기'와 '비성적유인 동기'에 따른 청소년 봉사활동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성적 유인동기'의 봉사활동 참여는 종단적으로 봉사활동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표6>을 보면 중1 패널의 경우 '비성적 유인동기'의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교 1학년의 3.30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등학교 3학년에는 3.45로 최대치를 나타냄. 이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있어서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표 6 연령변화에 따른 성적유인 동기 만족도와 비성적유인 동기 만족도의 변화

구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1
성적유인 동기	초1 패널	-	-	-	-	-	-	3.32	-	-	-	-	-	-
	초4 패널	-	-	-	-	-	-	3.07	3.21	3.22	3.21	-	-	-
	중1 패널	-	-	-	-	-	-	3.14	3.11	3.07	3.16	3.20	3.15	-
비성적유인 동기	초1 패널	-	-	-	-	-	-	3.40	-	-	-	-	-	-
	초4 패널	-	-	-	-	-	-	3.33	3.35	3.39	3.40	-	-	-
	중1 패널	-	-	-	-	-	-	3.30	3.29	3.30	3.43	3.39	3.45	-

-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동기를 ‘성적유인 동기’와 ‘비성적유인 동기’로 대별하여 봉사활동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초1 패널의 경우 ‘성적유인 동기’로 참여한 봉사활동의 만족도는 3.32로 ‘비성적유인 동기’로 참여한 봉사활동의 만족도 3.40보다 낮게 조사됨. 초4 패널과 중1 패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성적유인 동기’로 참여한 봉사활동의 만족도가 ‘비성적유인 동기’로 참여한 봉사활동의 만족도 보다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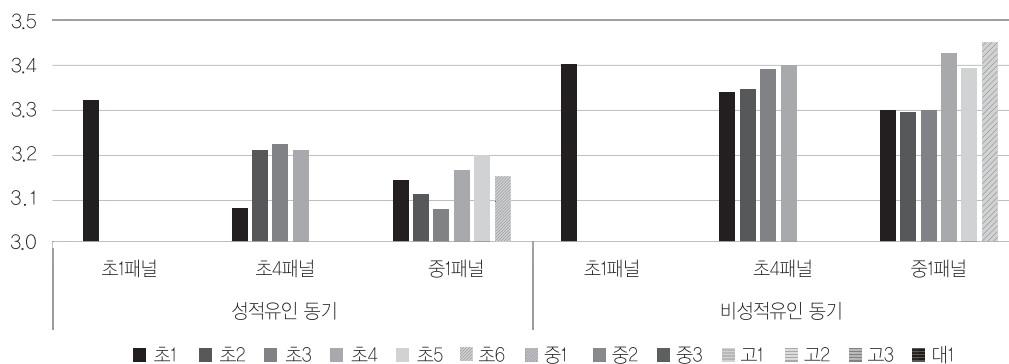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변화에 따른 성적유인 동기 만족도와 비성적유인 동기 만족도의 변화

3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통하여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기획된 청소년 국정과제 중 다양한 역량강화의 ‘봉사활동 내실화’를 중심으로 검토함.
- 분석 결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서 본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내실화 이전에 봉사참여 동기가 만족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절반이상의 청소년들에게서 학업성과와 같은 타의로 참여하는 봉사동기가 봉사활동의 성과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상기 시사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가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17,000여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2017년 전국 청소년정책지표 개발 연구’의 분석결과(최용환, 2017)와도 일치함.
- 현재 청소년정책의 국정과제는 실증자료에 착근한 목표설정과 정책시뮬레이션이 다소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종단적 변화 양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청소년 정책수립에도 유효한 준거(이종원 외, 2016)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재차 검증할 수 있었음.

참고문헌

- 이종원, 모상현, 강현철, 정윤미, 한지형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Ⅶ: 사업보고서(연구보고 16-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용환 (2017). 청소년 참여활동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변화 그리고 정책방향: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 최용환, 한지형, 박상현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연구성과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정과제-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에서 2017년 11월 3일 인출.